

내적 동학과 목적 지향적 행동

논의한바와같이 내적동학은 생명력, 생존력 및 생존본능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내적동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지향적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내적동학을 구성하는 세 가지 힘의 기능은 동일하지 않다. 이들은 모두 목적지향적 행동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각각의 역할은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내적동학을 구성하는 세 가지 힘의 기능과 역할 및 인간행동과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내적 동학의 기능과 역할

1) 생명력

인간의 행동은 영적 능력의 관련된다. 예로써 원시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은 주술사의 영적 또는 주술적 능력에 크게 지배되고 있었다. 오늘날, 문명의 사회에서도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인간의 행동은 영적 능력의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알라신과 영적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불교인들은 부처님과

영적 교감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신론자들조차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이나 정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조상신의 숭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다. 인간의 이러한 종교적 또는 영적 행동(예로써 종교적 의례, 기도 또는 종교적 수행 등)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영적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논의한바와 같이 인간의 영은 인간의 생명에 관계한다. 이러한 생명력은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부여된 영적 에너지이다.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하여 자신의 생존을 도모한다. 따라서 생명력은 자발적이거나 생적인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예로써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발적이거나 생적인 생존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믿음에 기초한 신앙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대상에



교수 이 경 환
한국산학경영학회 회장
인하대 경영대학
032-860-7735
leekh@inha.ac.kr

게 예배를드리고 헌신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은 스스로 변화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생명력에 크게 의존한다.

영적능력이기반을둔 인간의 행동은 가치 지향적 행동으로 흔히 나타난다. 예로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기초한 가치 추구적 삶을 도모한다.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삶을 추구한다. 황선영(1989)에 의하면 종교적 경험은 가치의 경험이라고 한다. 이 가치 경험은 진, 선, 미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을 문화 가치에 비교할 때 단순히 높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여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초세계적 가치라고 한다.

앞에서 우리는 생명력은 추상개념을 가시화하는 능력에 관계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진리, 행복, 아름다움 및 추함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추상개념을 가시화하거나 구체화를 통해 가치 지향적 삶을 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생명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행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인간의 가치 지향적 행동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명력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인간의 성장과 생명유지를 위한 근원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또한 생명력은 생존력과 생존본능과 결합을 통해 인간의 행동 패턴을 결정할 뿐 아니라, 이들을 형성하는 본원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2) 생존력

논의의 한바와 같이, 혼은 인간의 마음에 관계한다. Rober 등(1995)에 의하면 마음은 심리적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device)의 역할을 하는 가정된 정신적 프로세스와 행동의 총합이라고 한다.

Nairne(2003)은 마음은 주관적인 경험, 느낌 및 감정의 프로세스와 내용(contents)에 관계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생각은 목적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정신적인 가공 프로세스다. 지식은 유기체가 감각적인 입력을 선택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감정은 물리적 변화에 수반된 반응으로서 이는 개인에 의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해석되어 행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프로세스에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onston 등(2003)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이 사용하는 도구를 인지적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들은 인지적 프로세스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물을 알고 이해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능력은 주위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Rober 등(1995)은 인지적 프로세스는 생각, 상상 및 추론과 같은 모든 유형의 정신적 행동에 관계된다고 한다. Robbins(2003)은 인지 프로세스는 생각하는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기억, 추론, 문제 해결 및 상상을 포함하는 정보의 정신적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음의 기초한 인지 프로세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 지향적 행동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알 수 있다. 앞에서는 논의의 한바와 같이 권력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인지적 프로세스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프로세스이므로 이는 권력을 창출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즉, 인지적 프로세스는 권력 자원인 권력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중심으로 권력 원천을 창출하며 자신의 목적과 문제를 해결한다.

마음의 기반을 둔 목적 지향적 행동이나 문제 해결

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행동은 인간 의지적 행동을 포함한다. 인간 의지는 선택이나 행동의 자유로운 결정을 위한 내부적이며 개인적인 능력에 관계한다. (Cash 등, 2002).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의지작용이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힘과는 독립적으로 인간 개인의 내적 기준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써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동과정이 문제해결수단을 선택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생각, 사상, 가치, 감정, 지식, 경험과 같은 에너지인 마음의 다양한 자원이 존재한다. 인지적 프로세스는 이러한 마음의 자원을 권력요소로 하여 문제해결수단인 권력원천을 창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마음에는 본질적으로 자유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gers(1959)는 인간의 자아(self)를 개인적 자아(personal self)와 사회적 자아(social self)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자아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스스로 되고자 하는 자아(the self that one believes oneself to be and strives to be)를 의미한다. 사회적 자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방법과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는 방법(the social self is the way a person appears to others and the way the person thinks he or she appears to others)에 관계된다. 사회적 자아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할기대(role expectation)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내적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적 요소와 집단적 요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소는 스스로 되고자 하는 개인적 자아에 관계된다. 예로써 개인적 자아에서는 개인의 가치나 성향(predisposition)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

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집단적 요소는 사람의 사회적 자아에 관계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아는 집단적 교육, 훈련과 같은 학습에 의해 형성된 집단의 가치나 욕구 또는 목적에 의존한다. 예로써 전투상황에서 군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전투행위에 과감하게 몰입하는 것은 집단적 요소에 크게 의존한다.

인간의 생존력은 자신 의지에 따라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과정이거나 수단의 선택에 관계한다. 논의의 한 바와 같이 인간의 혼은 마음에 관계하며 이러한 마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인지적 프로세스를 통해 목적지향적 행동이나 문제해결수단인 권력을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음은 인간의 생존력에 관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논의의 한 바와 같이 권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권력을 창출 및 확산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력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권력을 창출하고 이를 순환시키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생존본능

Nairne(2006)는 본능은 세상의 특정한 유발 자극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반응의 비학습된 특성 패턴이라고 한다. Lefton 등(2005)은 본능은 학습이나 실습을 하지 않고서도 종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발생하는 고정된 행동 패턴이라고 한다. 신용섭 등(2005)에 의하면 유기체가 적절 한 상황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사전에 배열된 내적 생리적 힘을 본능이라고 한다.

Odjank(1976)는 어린이는 천부적인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명확한 방법으로 작동하는



개발된 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뇌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이며 모든 종족들의 심리적 기능의 저장소를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린이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서작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용하기 위해 준비된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뇌 속에는 본능들이 수행되고 또한 인간의 생각의 기초가 되었던 원초적 이미지(primordial images)가 작동한다고 한다.

Davis 등(2007)에 의하면 유기체는 행동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또는 생리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유기체의 레파토리로 학습되지 않은 행동을 본능이라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본능은 반사작용(reflex)보다 복잡하고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학습되지 않은 종에 특화된 행동(unlearned species-specific behavior)이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내면에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목적지향적인 에너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에너지는 인간의 생물학적 또는 생리적인 생존에 관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 또는 생리적인 에너지를 생존본능이라고 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본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Mcdougall(1908)은 인간의 내면에 획득, 구조화, 호기심, 비행(flight), 군집, 호전성, 번식, 반발, 자기비하 및 자기주장(self-assertion)의 10 가지 본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능들은 특정의 자극, 추동 또는 발전 조건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4) 내적동학과 인간행동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내적동학은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각

각의 역할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적동학을 구성하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동적 결합 관계에 있다. 예로서는 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이런 생명력은 생존본능이나 생존력과 결합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할 수도 모하게 하여 자발적인 내적 요구를 창출하게 하거나 가치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인간의 생존본능에 따른 욕구는 때로는 가치와 결합하여 자신의 힘을 강화하여 자신의 목적이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때로는 가치가 욕구를 지배하여 욕구를 억제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욕구가 가치를 지배하기도 한다. 앞에서 우리는 생존력은 문제해결 수단을 모색한다는 것을 논의했다. 욕구나 가치가 추구하는 목적 지향적 행동이 생존력에 의해서 실현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이러한 욕구나 가치는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생명력, 생존력 및 생존본능의 동적 결합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목적 지향적인 행동은 가치, 욕구, 감정 및 생각과 같은 인간의 내적동학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만의 의존해서 유발되기보다는 이들의 동적 결합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의 행동은 권력의 다섯 속성에 지배된다. 내적동학 요소들은 목적 지향 행동을 유발하는 내부적 에너지이므로 이들의 결합은 권력 속성에 의존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인간의 목적 지향적 행동은 내적동학과 권력 속성의 상호 동적 작용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행동의 포지셔닝과 인간행동

1) 행동의 포지셔닝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외부적 및 내부적 행동으로 구분한다. 외부적 행동이란 대화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가시적이고 관찰 가능한 활동을 의미한다. 내부적 행동은 이러한 외부적 행동에 수반된 내적 상태인생각하고, 지각하고, 의사결정하는 일련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활동에 관계된다.

성격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적 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 패턴을 유발하는 내부적 행동의 원천이라는데 있다. 예로서 Hill (2006)은 성격은 개인의 내적이고 유한한 성질(properties)을 나타내는 특성들의 안정된 집합이라고, 이러한 성질은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 경향을 반영한다고 한다. Nairne (2006)는 성격은 타인과 구분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특성의 현격한 패턴이라 한다. 따라서 성격은 인간 의 모든 내부적 행동에 관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외부적 행동 특성이나 패턴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목적지향적 행동은 내적 동학과 이들이 작용하는 권력 속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인간의 성격은 외부적 행동에 수반되는 내부적 행동에 관계하므로 내적 동학과 권력 속성의 작용 패턴은 성격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서 인간의 인지적 프로세스나 학습 및 태도의 특성은 인간의 성격에 배된다.

권력의 다섯 속성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시달발적으로 내적 동학에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작용 패턴은 성격에 의존한다. 예로서

내성적이거나 소극적 성격의 사람의 행동은 권력의 귀속 속성보다 지배되고,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인 사람의 행동에는 지배 속성이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적 동학과 권력 속성의 결합 패턴은 인간의 성격에 크게 의존하며 이러한 결합 패턴은 인간의 외부적 행동 특성이나 패턴에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목적지향적 행동은 내적 동학과 권력 동학의 상호 작용에 의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적 동학과 권력 속성의 상호 작용 패턴은 인간의 성격에 의존하므로 인간의 외부적 목적지향적 행동은 성격을 기반으로 한 내적 동학과 권력 속성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그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을 기반으로 한 내적 동학과 권력 속성의 동적 결합 프로세스를 행동의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 한다. 이러한 포지셔닝에 의해서 산출된 내적 동학과 권력 속성의 결합체를 행동의 포지션(position)이라 한다. 포지셔닝에서 인간의 성격은 환경이나 태도와 함께 작용하여 권력 동학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권력 속성이 작용하여 이들의 결합체인 행동의 포지션이 산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행동 특성은 포지셔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행동의 포지션과 행동 특성

인간의 내면에는 가치, 생각, 욕구, 감정, 지식과 같은 다양한 내적 동학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내적 동학은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성격에 기초하여 권력 속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행동 포지션을 창출하며 이들은 제각기 고유한 행동 패턴이나 성격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동 패턴이나 성격 특성은 다양하지만 대별하면 자기 방어적 행동(self-



defensive behavior) 자기 보존적 행동(self-maintenance behavior) 및 자기 규제적 행동(self-regulatory behavior)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자기 방어적 행동

자기 방어적 성격은 자신의 목적달성이나 생존을 위해 권력의 지배 또는 귀속 속성에 따라 방어적 행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방어적 행동은 자신보다 강한 권력에 대해서는 귀속 속성에 따라 소극적이거나 강한 권력에 순응하여 자신의 목적이거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권력에 대해서는 지배 속성에 따라 적극적으로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어적 행동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되기도 한다. 예로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약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소극적 행동을 흔히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서 자신의 이해가 있을 경우 방어적 행동은 비록 자신의 힘이 약할 경우에도 공격적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자기 방어적 성격에 의한 행동 특성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 모두에서 나타난다. 개인 수준에서 방어적 행동은 자기 과시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로서 인간이 허세를 부리거나, 몸예뉜신을 하여 자신을 과시하려는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명한 인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과시적 행동은 개인 수준에서 자기 과시적인 방어적 행동에 관계된다.

집단적 수준에서 방어적 행동은 집단적 과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로서 집단은 흔히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달성을 위해 집단적으로 시위를 주도한다. 집단에 의한 시위는 폭력이나 폭동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로서 미얀마에서의 군중대모는 폭력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한 군사적 방어막은 이들 국가에 제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집단적 수준에서의 방어적 행동은 동물의 경우에도 흔히 나타난다. 예로서 철치기군 집을 이루어 생존하는 것은 집단의 힘을 과시하려는 본능적 행동이다.

② 자기 보존적 행동

자기 보존적 성격은 정체성을 창출하고 다른 권력과 권력 결합을 통해 자신의 생존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행동에 관계한다. 권력 결합은 원력 요구를 만족시킬 때 유발하며 이러한 결합은 상호 필요로 하는 긍정적이며 고유한 가치에 의존한다. 따라서 권력주체가 권력 객체를 필요로 하는 긍정적이며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권력 결합은 실패한다. 따라서 자기 보존적 성격은 권력의 보존 속성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긍정적 인가치를 창출하고 결합 속성에 따라 권력 결합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한다. 자기 보존적 성격은 자신의 가문이나 전통, 학력 및 유산을 중요시하거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을 강조하고 이를 개창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자기 보존적 행동은 권력 결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다른 권력과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확신(self-confidence)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 확신은 다른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은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하는 확신적 태도나 행동에 관계한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로서 자기 확신에 처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고 확신한다. 아메리칸 디언들은 깃털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것 될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종교에 기초한 자기 확신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살폭탄 테러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기 확신에 빠진 인간은 교만이나 오만한 행동을 흔히 보인다.

자기 확신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관계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도 출할 수 있다. 예로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확신을 통해 새마을 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이 운동은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을 통해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기 확신은 개인, 집단 및 국가와 같은 모든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기 보존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적이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지닌 긍정적인 권력 원천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고요한 권력 원천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③ 자기 규제적 행동

자기 규제적 성격은 자신의 이익이나 생존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행동에 관계한다. 논의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가치나 권력 원천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 확산하여 공동체적 생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권력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concordance process가 필요하다. 이러한 concordance process는 사회 구성원들에 개권력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유발한다. 권력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 다발적 작용을 위해서는 내적 동학이나 사회 동학이 권력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되지 않아

야 한다. 뿐만 아니라 권력의 긍정적인 결과는 권력 프로세스와 concordance process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행사자의 도나 목적에 도 의존한다. (이경환, 2007)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 프로세스는 권력의 다섯 결정요소 즉, 권력요소, 욕구, 가치, 환경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프로세스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가 욕구나 가치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계에 의한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이는 부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로서 OPEC은 권력요소의 개발 없이 욕구나 가치를 무시하고 종교적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OPEC은 집단적이기 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기 규제적 행동에 의한 긍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과 함께 긍정적인 동기 부여를 위한 사회적 교육이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술표준 2007. 10